

韓國에 있어서의 日本經濟研究(1960~1986)*

金 宗 炫**

<目 次>

- I. 머 리 말
- II. 日本經濟研究의 推移
- III. 時期別 研究傾向 및 業績
- IV. 日本經濟의 研究機關
- V. 맺 는 말

I. 머 리 말

우리는 外國經濟研究의 意義를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一般의 意義로서 外國經濟研究를 통해서 그 나라의 經濟社會와 나아가 文化를 이해하고 國際社會의 이해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各國은 固有의 經濟發展過程과 社會經濟的 特徵을 가지고 있는 만큼 外國經濟研究를 통해서 그것을 비교·인식함으로써 韓國經濟의 발전과 현실적 문제에 관한 인식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外國經濟研究를 통해서 그 나라와의 경제관계에서 능동적·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日本經濟研究도 이러한 측면에서 그 意義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역사적으로 오랜 관계를 가져온 日本의 경제를 연구한다는 것은 일본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와 같은 東洋文化圈 속에서 후발국으로서 資本主義的 發展을 하고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급속한 성장과정을 거쳐 오늘날 선진자본주의 경제수준에 도달한 日本經濟를 연구하고 이를 우리나라경제와 비교해 봄으로써 韓國經濟의 발전과 현실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韓日經濟關係가 확대·심화되는 속에서 한국경제의 일본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대형화된 일본경제가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본경

* 本論文은 1987年 12月 8日 本研究所 주최로 열린 「국제심포지움: 日本經濟研究」에서 발표된 4편의 논문 중의 하나이다.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제를 연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能動的·效果的으로 對應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日本經濟를 研究하는 意義와 따라서 그 必要性은 크다고 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일본경제연구는 실질적으로 1965년의 韓日國交正常化를 계기로 새로이 시작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한일경제관계가 확대·심화되는 속에서 일본 경제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연구의 필요성도 커지면서 연구도 진전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本稿는 그동안의 日本經濟研究의 推移와 現況을 고찰한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앞으로의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경제의 연구추이와 현황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측면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그 동안의 연구를 量的으로 分析하여 그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研究業績을 내용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의 흐름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고는 주로 前者의 측면에서 과거 4半世紀 동안의 研究推移를 研究의 量的 擴大, 研究分野의 分布 및 연구의 性格을 고찰한 것이다. 後者의 측면은 아직도 일본경제에 대한 學術的 研究가 지속적·체계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검토되기 어려운 면도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年度別의 主要研究業績의 主題를 통해서 연구내용에 대한 일반적 흐름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본고에서의 분석을 위해서 이용된 자료는 『資料 韓國經濟學發達史』(李基俊 편저, 一潮閣, 1980), 『出版年鑑』(出版協會, 各年度版), 『定期刊行物 索引』(國會, 各年度版), 『碩·博士, 學位論文索引』(國會, 各年度版)이다. 이들 자료가 그 동안의 일본경제 연구업적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 자료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분야와 논문발표지의 분류도 일반분류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필자의 편의에 의해서 구분한 것이므로 반드시 합리적인 것은 아닐런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전반적 추이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 이들 자료는 유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II. 日本經濟研究의 推移

그동안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경제연구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表 1>은 1960~86년 동안의 한국에 있어서의 日本經濟의 各分野에 관한 研究의 量的 擴大推移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동안 일본경제연구는 1960년에 6건에 불과하던 것

이 1986년까지 총 1,604건에 이를 만큼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增加趨勢는 1970년대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時期別 研究數와 그것이 總研究數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보면 1960년대에는 124건(7.7%)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대에는 803건(50.1%), 그리고 80년대의 7년동안에는 677건(42.2%)에 달하고 있다. 日本經濟에 관한 연구는 國交正常化가 이루어지는 1960년대에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다가 1971년 이후에는 年度에 따라 약간의 偏差가 있기는 하나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던 日本經濟研究의 分野別 分布는 어떠한가. 研究件數로 볼 때 財政・金融分野가 526건(32.8%)을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이 國際關係로 341건(21.3%)이며 세째가 企業・經營分野로 227건(14.2%)이다. 이들 세 분야가 전체의 6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經濟一般(7.9%), 經濟動向(5%), 勞動(4.4%), 經濟成長(4.3%), 市場問題(2.7%), 經濟史(1.3%), 其他(4.4%)의 순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分野別 分布는 일본경제에 대한 분야별 關心度를 나타내는 하나의 指標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경제와의 관계가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金融, 貿易 및 經濟協力 등의 國際經濟關係 그리고 企業・經營 등의 諸分野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 이들 분야에서는 일찍부터 銀行과 協會 등 여러 機關이 자체의 調査機構와 調查研究發表의 手段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본경제연구를 해왔다는 것도 이 분야에 일본경제에 관한 연구가 數的으로 집중되게 된 배경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던 이와같은 증가추세를 나타낸 일본경제연구는 어떠한 性格의 것인가. 그들중에서 學術的 研究業績, 評論的인 것 그리고 현실적 필요에서 이루어진 調查報告의 性格의 것은

〈表 1〉 分野別 研究業績의 增加推移와 構成比(1960~86년)

區分	年度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60년대 소계
經濟一般	1	2	1	1	2	6	1	—	3	1	18(14.5)
經濟史	—	1	—	—	—	—	—	1	—	1	3(2.4)
經濟成長	2	2	2	1	4	2	—	2	6	2	23(18.5)
金融・財政	—	1	3	2	—	—	6	4	3	10	29(23.4)
企業・經營	—	—	—	—	—	3	1	—	2	—	6(4.8)
勞動	—	—	—	—	—	—	—	—	1	1	2(1.6)
農業	—	—	—	—	—	—	—	—	—	1	1(0.8)
國際關係	1	2	3	2	4	3	5	3	3	3	29(23.4)
經濟動向	1	2	2	—	—	3	1	1	1	—	11(8.9)
市場問題	—	—	—	—	—	—	—	—	—	—	0(0.0)
其他	1	—	—	—	—	—	—	—	—	1	2(1.6)
計	6	10	11	6	10	17	14	11	19	20	124(100.0)

區分	年度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70년대 소계
經濟一般	6	10	5	14	11	4	4	7	7	9	77(9.6)
經濟史	1	1	1	—	2	1	—	2	—	—	8(1.0)
經濟成長	—	2	4	2	4	3	—	4	1	2	22(2.7)
金融·財政	4	12	7	16	21	18	35	45	40	49	247(30.8)
企業·經營	3	1	1	14	8	11	12	5	11	7	73(9.1)
勞動業	—	2	—	10	1	24	13	—	1	1	52(6.5)
農業	—	—	1	6	1	1	4	2	—	—	15(1.9)
國際關係	8	19	9	31	30	16	10	26	26	24	199(24.8)
經濟動向	—	1	1	1	2	16	5	6	10	7	49(6.1)
市場問題	—	2	—	3	2	1	3	7	5	10	33(4.1)
其他	—	2	1	2	—	—	1	7	6	9	28(3.5)
計	22	52	30	99	82	95	87	111	107	118	803(100.0)

區分	年度								합 계
	'80	'81	'82	'83	'84	'85	'86	'80년대 소계	
經濟一般	8	3	7	6	2	4	2	32(4.7)	127(7.9)
經濟史	2	—	—	2	—	3	3	10(1.5)	21(1.3)
經濟成長	2	6	7	3	3	1	2	24(3.5)	69(4.3)
金融·財政	52	24	27	24	53	39	31	250(36.9)	526(32.8)
企業·經營	6	8	16	22	40	34	22	148(21.9)	227(14.2)
勞動業	—	6	7	2	1	—	—	16(2.4)	70(4.4)
農業	1	3	2	6	—	—	—	12(1.8)	28(1.7)
國際關係	22	14	8	3	22	32	12	113(16.7)	341(21.3)
經濟動向	5	2	2	3	5	1	3	21(3.1)	81(5.0)
市場問題	6	—	—	1	2	1	1	11(1.6)	44(2.7)
其他	3	2	—	7	19	7	2	40(5.9)	70(4.4)
計	107	68	76	79	147	122	78	677(100.0)	1,604(100.0)

註: 1) () 안은 %를 나타냄.

2) 經濟一般 項目에는 경제의 일반상황을 나타내는 것—예를 들면 成長率, 經濟全體狀況 등—을 포함시킴.

3) 其他 項目에는 위의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製造業이나 其他 事項들이 포함됨.

각각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研究의 性格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연구의 발표수단을 單行本(저서 및 역서), 碩士學位論文, 學術論文, 綜合雜誌(月刊), 그리고 銀行, 企業, 協會 등 여러 기관에서 발행하는 調查報類로 구분하여 그들 수단을 통해서 발표된 연구업적수를 분류해 보았다. 碩士學位論文은 젊은 연구자들의 일본경제에 관한 관심도의 추이를 보기 위하여 별도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는 <表 2>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1960~1986년 동안에 발표된 研究業績總數(1,604件)에서 各發表手段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單行本(저서, 역서) 2.7%, 碩士學位論文 2.6%, 學術論文 5.9%, 綜合雜誌論文 4.6% 그리고 調查報類論文 84.3%로 되어있다. 일본경제연구의 대부분은

〈表 2〉發表手段別 研究業績의 增加推移와 構成比

區分 \ 年度	1960~1969	1970~1979	1980~1986	總 計
著 書〔譯書〕	7[2](16.3) <5.6>	10[2](23.3) <1.2>	26[13](60.5) <3.8>	43[17](100.0) <2.7>
碩士學位論文	2 (4.9) <1.6>	10 (24.4) <1.2>	29 (70.7) <4.3>	41 (100.0) <2.6>
學 術 論 文	16 (16.8) <12.9>	44 (46.3) <5.5>	35 (36.8) <5.2>	95 (100.0) <5.9>
綜合誌掲載論文	16 (21.9) <12.9>	38 (52.1) <4.7>	19 (26.0) <2.8>	73 (100.0) <4.6>
調查報掲載論文	83 (6.1) <66.9>	701 (51.8) <87.3>	568 (42.0) <83.4>	1,352 (100.0) <84.3>
總 計	124 (7.7) <100.0>	803 (50.1) <100.0>	677 (42.2) <100.0>	1,604 (100.0) <100.0>

註: 1) [] 안은 저서 중 역서의 수
2) (), < >는 %를 나타냄.

調查報類에 실린 調查論文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日本研究가 주로 現實的 關心과 業務와 관련된 實際的인 必要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學術的 研究는 그에 상응한 진개를 하지 못하여 왔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學術的 研究의 경우도 1970년대 이후에는 비록 그 상대적 비율이 그 이전 보다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著書와 論文이 다 같이 수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學術的 研究의 상대적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調查報類의 發表手段이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는 데에 기인한다. 碩士學位論文의 수도 시기가 뒤로 올수록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술적 연구도 앞으로 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III. 時期別 研究傾向 및 業績

1. 1960年代

1960년대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한일회담이 타결되어 國交正常化가 이루어지고 韓日經濟關係가 새로운 차원에서 진개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日本經濟에 대한 關心과 論議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일본경제에 관한 관심과 논의는 주로 두가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1950년대 중엽이후의 高度成長을 배경으로 일본경제의 現況 및 動向, 戰後 日本經濟의 成長 및 그것을 뒷받침한 諸要因, 그리고 日本의 經濟計劃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1960

년대 전반기에 있어서의 日本의 貿易 및 資本自由化와 1960년대 후반기에 있어서의 重化學工業製品을 중심으로 한 輸出의 急增에 따르는 國際收支 赤字基調의 定着 및 그 幅의 확대로 日本經濟의 國際化가 진전되는 속에서의 한일경제관계를 포함한 日本의 對外經濟關係에 관한 것이다. 第1·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도입·실시되고 있던 한국경제의 현실에서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의 요인이라든가 경제계획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한편 한일경제 관계가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되려는 시점에서 그의 전개 방향과 관련하여 일본경제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의 분야와 관련해서 일찌기 1960년에 「2次大戰後 日本의 工業成長」(신병현⁽¹⁾), 1961년에는 「敗戰 日本經濟의 成長」(陸之修⁽²⁾)과 「일본경제를 해부한다」(崔泰鎬⁽³⁾), 그리고 1962년에는 일본시찰을 통해서 본 일본경제론(崔虎鎭, 崔文煥⁽⁴⁾) 등이 綜合雜誌 論說文으로 나오고 單行本으로 『韓國이 본 日本經濟』(金龍紀, 한국생산성본부, 1962)가 출판되었다. 뒤이어 1965년과 68년을 중심으로 일본경제의 「動向」(千炳圭⁽⁵⁾·金貞世⁽⁶⁾), 「現況」(최규원⁽⁷⁾·홍성유⁽⁸⁾), 成長 및 發展(金宗炫⁽⁹⁾·閔丙彩⁽¹⁰⁾·鄭道泳⁽¹¹⁾)에 관한 논고들이 나왔다. 일본경제의 성장요인에 대해서는 성장 및 발전을 다룬 논문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1968년에는 「日本經濟를 解剖한다」라는 제목으로 「非經濟的 要因」(高承濟), 「成長과 企業活動」(박세근), 「經濟的 要因」(李滿基), 「回顧와 展望」(張源宗)의 측면에서 논의 되었다.⁽¹²⁾ 高度成長과 관련해서 일본의 경제계획은 경제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활발한 민간의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60년대의 「國民所得倍增計劃」은 중요한 것이었다.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실시하고 있던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경제계획이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기관에서 「日本의 長期經濟開發計劃」(부흥부 기획국⁽¹³⁾), 「日本의 中期 經濟計劃案」 및 「日本의 國民所得倍增計劃 補正作

(1) 『思想界』, 8(7).

(2) 『思想界』, 9(2).

(3) 『財政』, 10(2).

(4) 『思想界』, 10(1), 10(2).

(5) 『政經研究』, 1(6), 1965.

(6) 『新東亞』, 14, 1965.

(7) 『企業經營』, 91, 1965.

(8) 『思想界』, 3(11), 1965.

(9) 『政經研究』, 1(5), 1965; 『국제정치논총』, 7, 1968.

(10) 『상대논집』(釜山大), 26, 1968.

(11) 『思想界』, 16(6), 1968.

(12) 『現代經營』, 3(4), 1968.

(13) 『經濟月報』, 6(3), 1961.

業報告」(외무부 통상국⁽¹⁴⁾), 「日本中期經濟計劃」(농림부⁽¹⁵⁾) 등이 나왔으며, 또한 「日本經濟社會發展計劃의 方向」(유선호⁽¹⁶⁾)이 나왔다.

둘째분야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韓日會談이 妥結된 1965년 이전과 그 직후에는 한국과의 관련에서 日本經濟의 進出을 警戒하거나 그 問題點을 제시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일본경제의 진출을 경계하는 논문들이 『思想界』를 중심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논문으로는 「日本の 經濟攻勢—민족생명이란 수억불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安霖⁽¹⁷⁾), 「재건된 일본경제의 躍相—시대착오적인 자본공세를 향하지 않도록」(이열모⁽¹⁸⁾), 「일본의 인근 구평화 정책—무역회담의 문제점」(김영록⁽¹⁹⁾), 『일본자본의 상륙—전환점에 선 한국경제와 기업』(林苗民⁽²⁰⁾) 등이 있다. 이외에 經濟協力の 現況과 問題點을 고찰한 논문으로는 「日本の 經濟協力 및 賠償體制와 韓日問題」(産銀調査部⁽²¹⁾)와 「일본에 있어서의 對外經濟協力の 現況과 問題點」(한국생산성본부⁽²²⁾)이 있다.

1967년 이후에는 한일경제관계가 전개되면서 일본의 資本自由化에 관한 논문들이 많이 나왔다. 「日本の 資本自由化」(김한모⁽²³⁾), 「일본의 자본자유화의 방향」(한국생산성본부⁽²⁴⁾), 「일본의 자본자유화와 외자도입」(이선호⁽²⁵⁾) 등이 그것이다. 이들의외에 「日本の 開放經濟體制移行과 自由化」(외무부 통상국⁽²⁶⁾), 「일본의 무역금융제도」(이한준⁽²⁷⁾)와 함께 일본의 對外經濟協力, 資本自由化, 貿易金融, 中小企業 등에 대한 調查報告 및 論文들이 『貿易振興』, 『金融』, 『國稅』, 『投資』, 『株式』 등과 『外換研究』, 『朝興經濟』, 『一銀調査』, 『調査月報』(국민은행), 『海外經濟』, 『調査月報』(산업은행) 등에 발표되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서울대)에서는 수출진흥을 위한 각국경제연구의 일환으로 『輸出振興을 위한 日本經濟研究』(1969년)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1960년대의 한국에서의 일본경제연구는 韓日國交 正常化를 계기로 日本經濟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日本經濟의 高度成長과 그 要因 및 그와 관련된 經濟計劃 그리고

(14) 『國際經濟月報』, 3(1-2), 1964.

(15) 『農村經濟』, 12-15, 1965.

(16) 『質協誌』, 10, 1967.

(17) 『思想界』, 11(7), 1963.

(18) 『思想界』, 11(8), 1963.

(19) 『思想界』, 13(6), 1965.

(20) 財政社, 1966.

(21) 『産銀調査月報』, 106, 1964.

(22) 『企業經營』, 94, 96-97, 1966.

(23) 『貿易振興』, 6(48), 1967.

(24) 『企業經營』, 114, 1967.

(25) 『金融』, 16(3-4), 1969.

(26) 『國際經濟月報』, 3(2), 1964.

(27) 『金融』, 14(2), 1967.

日本の貿易 및 資本自由化 등 對外經濟關係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약간의 연구들이 나왔다. 1962년에 單行本으로 『日本の中小企業』(朴東圭, 한국생산성본부)과 『日本の中小企業金融』(중소기업 기획조사부)이 나왔으며, 論文으로는 「일본철강업—고로공장의 배치적 특색」(金仁玉⁽²⁸⁾), 「일본재벌의 개념과 범주」, 「일본재벌의 형성과 실태」, 「전후 일본재벌의 성격과 해외진출」(裴漢慶⁽²⁹⁾), 「일본의 봉건도시경제」(金日坤⁽³⁰⁾), 「일본자본주의와 농업구조」(배기완⁽³¹⁾), 「1919년 전후 일본경제의 동향」(金宗炫⁽³²⁾) 등이 나왔다.

2. 1970年代

이 시기는 한일경제관계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기이다. 한국에서는 第2·3次 經濟開發 5年計劃期間으로 對外指向型 工業化政策이 추진되고 중화학 공업의 발전이 추구되는 속에서 일본과의 무역 및 자본거래 관계는 확대되어 일본경제와의 관계가 그만큼 확대·심화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일본경제는 國際通貨體制의 동요와 石油波動이라는 國際經濟環境의 변화와 함께 1974년의 마이너스성장을 거쳐 그후부터는 「低成長時代」로 들어가는 한편 막대한 자본축적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대외진출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경제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그에 대응해서 조사 및 연구는 대상분야가 크게 확대되고 수적으로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73년 무렵에는 綜合雜誌와 기타 잡지에서 일본경제에 대한 特輯들이 나오고 있다. 1970년대의 研究動向을 우리는 몇가지 분야로 구분해서 고찰하기로 하자.

우선 日本經濟의 現況 및 展望, 景氣動向 및 對策, 經濟成長 및 發展, 經濟計劃 등의 분야에 관한 연구 업적을 보자. 日本經濟의 現況과 景氣動向에 대한 論文으로는 「日本の經濟現況과 政策展望」, 「日本經濟—그 폭발적 성장과 앞으로의 문제」(俞仁浩⁽³³⁾), 「日本の景氣對策」(金正年⁽³⁴⁾), 「日本經濟의 回顧와 展望」(辛奉杰⁽³⁵⁾) 등과 單行本(譯書)으로 『經濟의 動向』(大河內一男⁽³⁶⁾)이 나왔다. 日本經濟의 成長과 發展에 關連되는 論文으로는 「日本經濟發展의 特殊性에 關한 소고」(愼奎晟⁽³⁷⁾), 「戰後日本資本主義의 發展과 特質에 關한 고찰」

(28) 『經濟學論集』(中央大), 3-2, 1960.

(29) 『靑脈』, 2(4), 1965.

(30) 『商大論集』(釜山大), 24, 1967.

(31) 『商經論叢』(檀國大), 7, 1968.

(32) 『三·一運動 50週年紀念論集』, 東亞日報社, 1969.

(33) 『國際問題』, 3, 5(5), 1972; 『國際關係研究』, 3, 2(4), 1972.

(34) 『政經研究』, 87, 1972.

(35) 『東亞經濟』, 12(1, 2), 1974.

(36) 한희영역, 동서출판사, 1974.

(37) 『東亞論叢』(東亞大), 9(3), 1972.

(裴漢慶⁽³⁸⁾), 「賃金, 物價의 惡循環과 成長持續의 難題」(朴淳煥⁽³⁹⁾), 일본경제의 構造에 대해서는 「日本經濟構造의 虛實」(金完淳·朱鶴中⁽⁴⁰⁾), 「日本經濟의 再生產構造와 韓國經濟座標」(趙容範⁽⁴¹⁾), 「경제평창력의 대내외적구조」(金基浩⁽⁴²⁾), 「일본 재등장의 배경과 현실」(이영희⁽⁴³⁾) 등이 있으며, 單行本(역서)으로는 『成長論爭과 그 實證—高度成長理論의 탄생에서 지금까지—』(田中與造⁽⁴⁴⁾)과 『實錄 日本經濟50年』(有澤廣巳⁽⁴⁵⁾)이 있다. 經濟計劃에 대해서는 『日本新經濟社會 7個年計劃의 基本構想』(국제문제조사연구소편⁽⁴⁶⁾)이 나왔다.

日本の 對外貿易 분야에서는 1970년대 초에는 일본의 對美貿易, 對東南亞貿易 및 對中國·北韓·蘇聯등 共產圈貿易과 關稅制度에 대해서, 1970년대 중반기에는 그에 더하여 일본의 對 EC貿易現況, 일본의 플랜트수출 전략과 현황 및 國際收支에 대해서 그리고 1970년대 말 특히 1978년에는 美·日的 「자본전쟁」, 「경제전쟁」, 「통화전쟁」, 「무역전쟁」, 日本의 對美·EC 「무역전쟁」등 日本의 對美·EC 貿易·經濟摩擦과 일본의 對共產圈 貿易動向 및 展望, 日本의 通商産業政策, 貿易動向, 外換管理 自由化 등에 대해서 많은 調查研究가 이루어졌다. 그와 함께 1970년대에는 일본의 綜合商社와 企業集團에 관한 연구도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다.

日本の 對共產圈貿易에 관한 研究로는 1970년의 「日本의 對北韓經濟關係에 관한 연구」(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를 효시로, 1971~73년에는 日本·北韓間의 經濟交流 및 貿易現況에 관한 보고 및 논문(海外經濟研究所⁽⁴⁷⁾, 장연호⁽⁴⁸⁾, 김봉현⁽⁴⁹⁾), 日本의 對中共貿易에 대해서는 1970년의 「일본의 대중공 무역접근과 주 4원칙」(김상곤⁽⁵⁰⁾)을 효시로, 「일·중공무역의 추이와 전망」(여정동·전영순⁽⁵¹⁾), 「일·중공간의 무역에 관한 협정」(김진일⁽⁵²⁾) 등이 나왔으며 일본의 對소련무역에 대해서는 「일·소무역의 최근동향」(정만술⁽⁵³⁾)이 나왔다.

(38) 『論文集』(서울女大), 3, 1974.

(39) 『政經研究』, 126(7), 1975.

(40) 『新東亞』, 108(8), 1973.

(41) 『國際問題』, 4-5, 1973.

(42) 『政經研究』, 106(11), 1972.

(43) 『創作과 批評』, 6(2), 1971.

(44) 한국경제연구소역, 신평출판사, 1973.

(45) 鄭翊周譯, 協同研究社, 1977.

(46) 『國際情報資料』, 79, 1979.

(47) 『政策報告』, 1972.

(48) 『東西經濟』, 7, 1973.

(49) 『國際問題』, 4(3), 1973.

(50) 『政經研究』, 66, 1970.

(51) 『貿易研究』, 3-2, 1971; 5-1, 1973.

(52) 『東西經濟』, 3, 1974.

(53) 『東西經濟』, 12, 1974.

日本の對東南亞 經濟・貿易關係에 대해서는 1971년의 「일본의 동남아에 대한 새로운 자세와 한국—경제적 측면에서」(金宗炫⁽⁵⁴⁾)에 이어 1973년에는 特輯 「太平洋에 進出した 日本 膨脹主義⁽⁵⁵⁾」, 1974년에는 特輯 「日本과 東亞細亞」⁽⁵⁶⁾, 「일본의 對아시아 시장정책의 변화」(金敬敏⁽⁵⁷⁾) 및 「일본의 동남아 경제진출 상황과 그 전략」(徐南源⁽⁵⁸⁾)이 나왔다. 일본의 對美貿易에 대한 연구로는 1973년의 「급변하는 미·일 경제관계」(申奉杰⁽⁵⁹⁾)에 이어 1978년에는 「미·일경제전쟁」(金成斗⁽⁶⁰⁾), 「미·일의 통화전쟁과 국제경제」(朴宇熙⁽⁶¹⁾), 「미·일 무역전쟁의 과장」(金炳仁⁽⁶²⁾) 등이 나왔다. 일본의 特定 商品貿易에 관한 調查研究로는 「일본의 플랜트수출전략」(구길희⁽⁶³⁾)과 「일본플랜트수출의 현황과 과제」(한국무역협회편⁽⁶⁴⁾)가 있다. 일본의 貿易自由化의 實狀에 대해서는 「일본경제의 자유화 경험」(이동호⁽⁶⁵⁾)과 「일본무역자유화의 허실」(朴宇熙⁽⁶⁶⁾)이, 그리고 일본의 通貨價值問題에 대해서는 「일본의 엔화 절상하 수출증대의 원인」(金廣斗⁽⁶⁷⁾) 등이 있다. 또한 일본의 貿易一般과 通商政策에 대해서는 「전전기 일본무역 발전에 관한 연구」(林鍾哲⁽⁶⁸⁾), 「일본대외무역의 과제」(송순경⁽⁶⁹⁾), 「일본의 통상정책(1955~67)과 1970년대 우리의 대일수출전략」(金完淳⁽⁷⁰⁾), 「일본의 수산물수입제도와 국내산업보호정책」(박용상⁽⁷¹⁾) 등이 있다. 한편 綜合貿易商社에 관한 연구로는 「일본종합무역상사」(韓羲泳⁽⁷²⁾)와 단행본으로는 『일본의 종합상사』(高時天⁽⁷³⁾) 등이 있으며 일본의 수출체제와 관련된 연구로는 「주식회사 일본의 상흔」(박동순⁽⁷⁴⁾)과 「일본주식회사」(한국생산성본부)⁽⁷⁵⁾ 등이 있다.

(54) 『國際關係研究』, 2-3, 1971.

(55) 『中央』, 60(3), 1973.

(56) 『國際問題』, 44(4), 1974.

(57) 『政經研究』, 114(7), 1974.

(58) 經科審, 1974.

(59) 『東西經濟』, 10, 1973.

(60) 『世代』, 176, 1978.

(61) 『新東亞』, 161, 1978.

(62) 『自由公論』, 133, 1978.

(63) 『貿易』, 128, 1974.

(64) 『貿易』, 152, 1979.

(65) 『企業經濟』, 242, 1978.

(66) 『貿易』, 141, 1978.

(67) 『貿易』, 157, 1979.

(68) 『貿易研究』, 5-2, 1972.

(69) 『東西經濟』, 29(12), 1976.

(70) 『亞細亞研究』, 17-1(51), 1974.

(71) 『農業政策研究』 I, 1973.

(72) 『경영과 마케팅』, 7, 10(10), 1973.

(73) 國際經濟研究院, 1978.

(74) 『中央』, 40, 1971.

(75) 『企業經營』, 179-182(3-6), 1973.

1970년대에 들어 일본의 對外經濟協력이 적극화되는 속에서 韓日經濟協力關係도 더욱 擴大・深化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日本의 對外經濟協력에 관한 研究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경우 특히 日本이 적극적으로 對外經濟協력을 하게 된 理由, 經濟協力の 方向과 日本企業의 海外進出의 現況 및 實態, 韓日經濟協力の 展開와 問題點 등이 주요 관심대상이 되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日本經濟가 對外協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原因과 관련된 研究로는 「日本經濟의 矛盾과 對外進出의 不可避性」(金成斗⁽⁷⁶⁾), 「일본재등장의 배경과 현실」(이영희⁽⁷⁷⁾), 「日本의 經濟構造와 對外經濟協力」(전응렬⁽⁷⁸⁾), 「일본의 자원보장과 해외투자정책」(李守信⁽⁷⁹⁾), 「日本의 資源確保政策과 海外投資」(경제기획원⁽⁸⁰⁾), 일본의 경제협력 일반에 대해서는 「60년대 일본의 경제협력에 대한 일고찰」(朴贊一⁽⁸¹⁾), 「일본의 해외투자현황」(이면수⁽⁸²⁾), 「日本 海外投資의 現況과 展望」(한국의 환은행편⁽⁸³⁾), 「日本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變遷」(한국의 환은행)⁽⁸⁴⁾ 등이 있다. 韓日經濟協력에 관해서는 「한일경제협력에 관한 연구」(金宗炫⁽⁸⁵⁾), 「일본자본과 한국경제」(朴東燮⁽⁸⁶⁾), 「일본자본의 실태와 한일경제관계」(李靑山⁽⁸⁷⁾), 「한일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金日坤⁽⁸⁸⁾), 「제 2 차대전 이후의 대한진출에 관한 연구서설」(安霖⁽⁸⁹⁾), 「일본자본주의 성격과 한일관계」(朴玄塚⁽⁹⁰⁾) 등이 있다. 이들 연구 이외에도 日本의 經濟協力 一般, 東南亞 및 韓國과의 經濟協력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잡지를 통해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며 日本企業의 海外進出의 實態 및 現況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의 각종 잡지를 통해서 조사・보고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日本의 金融・銀行制度 一般, 信用金庫, 市民金融, 短期金融市場, 短資會社, 円貨切上問題, 外換市場 등을 중심으로 한 金融通貨部門과 豫算, 租稅 및 關稅制度, 그리고 證券, 資本市場등에 관해서는 各 銀行을 비롯한 이들 분야의 業界雜誌를 통해서 많은 調查報告가

(76) 『銀行界』, 5(9), 1970.

(77) 『創作과 批評』, 6(2), 1971.

(78) 『國際問題』, 2-3, 1971.

(79) 『金融』, 283, 1977.

(80) 『月刊經濟動向』, 10-11, 1977.

(81) 『貿易論叢』, 6, 1977.

(82) 『東西經濟』, 27, 1976.

(83) 『海外經濟』, 79(2), 1974.

(84) 『海外經濟』, 114, 1977.

(85) 『亞細亞研究』(高大亞研), 15-3(47), 1972.

(86) 『日本問題』, 8, 1973.

(87) 『創作과 批評』, 9, 2(6), 1974.

(88) 『釜山大論文集』, 17, 1974.

(89) 『省谷論叢』, 5, 1974.

(90) 『對話』, 80, 1977.

발표되었다. 이들 분야의 주요 연구로는 「일본은행의 국제화」(鄭鎮東⁽⁹¹⁾), 「일본의 금리 자유화론」(유광진⁽⁹²⁾), 「일본의 근대적 화폐제도의 성립과정」 및 「明治期 일본의 화폐제도 개편에 관한 소고」(최류갑⁽⁹³⁾), 「엔화의 충격과 파장」(심상필⁽⁹⁴⁾), 「엔화가치붕락의 배경」(김창희⁽⁹⁵⁾), 「일본의 자본시장, 발달과정, 구조, 현황」(경제계사편⁽⁹⁶⁾), 「일본자본시장의 국제화 전개과정」(吳白教⁽⁹⁷⁾), 「1949년도의 일본의 예산과 보수성」(吉昇欽⁽⁹⁸⁾) 등이 있다.

일본의 産業部門에 대해서는 低成長期에 접어들어 産業構造의 轉換이 추진되는 속에서 斜陽産業과 成長産業, 主要産業一般, 纖維, 製紙, 石油化學, 電子 등 諸工業과 농업, 식량 문제, 축산, 잠사, 수산 등 農水産業, 백화점, 슈퍼, 체인스토어 등 流通業, 그리고 海運, 保險 등 諸産業의 現況에 대한 조사보고가 이들 제 업계잡지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각 업계에 의한 일본의 市場調査가 이루어지고 일본시장의 성격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의 연구로는 「일본의 유통기구 및 소비시장에 관한 연구」(양창삼⁽⁹⁹⁾), 「한·미·일 유통시스템의 비교연구—수학적모델을 중심으로」(임진수)⁽¹⁰⁰⁾ 등이 있다. 산업조직과 관련된 연구로는 「일본의 독점정책고찰」(丁炳炘⁽¹⁰¹⁾), 「일본국의 제 2차 농업구조개선 사업개요」(농수산부편⁽¹⁰²⁾), 「농지법 개정에서 살펴 본 전후 일본의 농지개혁」(장한식⁽¹⁰³⁾), 「일본농지개혁의 역사적배경」(李丙洙⁽¹⁰⁴⁾) 등이 있다.

일본의 企業에 관해서는 우선 「일본재벌 풍토기」(이동근⁽¹⁰⁵⁾), 「미쓰비시왕국의 재등장」(沈在株⁽¹⁰⁶⁾), 「한국에서의 일본 다국적 기업(영문)」(이영호⁽¹⁰⁷⁾), 「미쓰이 재벌에 관한 사적 연구」(黃明水⁽¹⁰⁸⁾) 등 재벌기업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中小企業에 대해서는 經濟發展과 中小企業政策, 중소기업의 構造變化, 중소기업의 技術變化와 支援對策, 중소기업의 經營,

(91) 『金融』, 252 (3), 1975.

(92) 『金融』, 292, 1978.

(93) 『외대논문집』, 3, 4, 1970, 1971.

(94) 『新東亞』, 87, 1971.

(95) 『銀行界』, 8, 12(12), 1973.

(96) 『經濟界』, 2, 9(11), 1973.

(97) 『金融』, 302, 1979.

(98) 『社會科學論文集』, 3, 1978.

(99) 서울大 經營大, 석사논문, 1971.

(100) 『崇田大論文集』(人文·社會科學), 9, 1979.

(101) 文教部, 1972.

(102) 『農業經濟』, 32(6), 1973.

(103) 『農業政策研究』, 2, 1974.

(104) 『崔虎鎮博士 華甲紀念論叢』, 1, 1974.

(105) 『世代』, 9(3), 1971.

(106) 『世代』, 11, 6(6), 1973.

(107) 『中央大 經營學論集』, 2, 1(3), 1975.

(108) 『東洋學』, 7, 1977.

중소기업의 財務構造, 育成制度 및 施策 등에 대해서는 『調査月報』(중소기업은행)에 많은 조사 보고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며, 그외에 「한일간 중소기업 재무구조의 비교분석」(禹永涉⁽¹⁰⁹⁾), 「일본의 중소기업육성제도 및 시책」(李元默⁽¹¹⁰⁾) 등의 논문이 있다.

低成長에의 對應形態로서 에너지多消費의 素材産業에서 에너지節約的 高度技術·勞動集約型 機械工業에로의 産業構造의 전환이 정책적으로 유도되는 속에서 企業레벨에서는 「減量經營」, 「QC써클」 등 生産性向上運動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76년 이후 일본 기업의 經營戰略, 經營의 特徵, 勞使關係, 雇傭制度, 雇傭事情, QC써클활동 등에 대한 조사 논문들이 『企業經營』과 各 業界雜誌에서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들 분야의 논문으로는 「성공기업에서 배운다—일본의 실례」, 「일본기업경영의 특징—손보사의 경우를 중심으로」(진인식⁽¹¹¹⁾), 「일본인사관리의 성격(영문)」(송일⁽¹¹²⁾) 「일본의 노동운동」(엄기섭⁽¹¹³⁾), 「서독과 일본의 직업안정제도에 관한 비교연구」(박래영⁽¹¹⁴⁾) 「일본기업에 있어서의 IE활동에 대한 소고」(이순중⁽¹¹⁵⁾), 「일본의 QC 써클활동」(한국산업은행 기술부편⁽¹¹⁶⁾), 「일본기업의 TQC도입과 추진현황」(조용제⁽¹¹⁷⁾) 등이 있다.

3. 1980年代

1980년대에 들어 일본경제연구는 1970년대의 연속선상에서 量的으로 확대되고 여러 분야에서 著書와 譯書 등 單行本이 보다 많이 출판되는 등 보다 진전되었다. 1960~86년에 발행된 單行本 總數(43권)의 16.3%가 1960년대, 22.3%가 1970년대 그리고 60.5%가 1980년대에 출판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나온 碩士學位論文總數(41편)의 70.7%가 1980년대에 나온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 日本經濟의 現況·動向 및 對策에 대해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각종 잡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들을 제외하고 日本經濟의 成長·發展과 관련된 주요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즉 單行本으로는 『섬나라 그리고 경제대국』(조규식⁽¹¹⁸⁾) 『유교문화권의 질서와 경제(일문)』(김일곤⁽¹¹⁹⁾), 『왜 일본은 ‘成功’하였는가—日魂洋才(森嶋通夫著 李基俊譯⁽¹²⁰⁾)와 연구보고서 『일본의 경제·기술 및 군사에 관한 연구』(金宗炫, 鄭英

(109) 『産業問題論集』, 1(1), 1978.

(110) 『信用社會』, 4, 1978.

(111) 『損害保險』, 18, 6, 1978.

(112) 『經濟論叢』(國民大), 1, 1979.

(113) 『勞動公論』, 4-2, 1974.

(114) 『弘大論叢』, 9, 1977.

(115) 및 (116) 産業技術, 111(2), 1976.

(117) 『化纖』, 38, 1978.

(118) 교육개발 문음사, 1981.

(119) 名古屋大學 出版會(名古屋), 1984.

(120) 一潮閣, 1982.

一 의⁽¹²¹⁾ 그리고 1987년에 이르러서는 『전후 일본경제론』(姜泳瑠⁽¹²²⁾)이 출판되었으며, 논문으로는 「일본종합경제대책의 내용과 평가」(金南斗⁽¹²³⁾),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국면에 관한 연구」(李鍾燾⁽¹²⁴⁾), 「전후 일본경제발전의 전개과정」(李海珠⁽¹²⁵⁾), 「전후 일본경제의 분석: 성장요인을 중심으로」(曹圭河⁽¹²⁶⁾), 「일본경제의 <성공>을 보는 시각」(朱宗桓⁽¹²⁷⁾), 「日本은 어떻게 成功하였는가?」(李亨純⁽¹²⁸⁾), 「일본의 경제발전과 근면성」(朴宇熙⁽¹²⁹⁾), 「전후 일본경제의 구조분석」(李鍾燾⁽¹³⁰⁾), 「일본경제의 구조적 특질」 및 「유교문화권의 경제발전—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金日坤⁽¹³¹⁾) 등이 나왔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1980년대에 들어 經濟史分野의 저서 및 역서가 뒤이어 출판되었다는 것이다. 「일본공업화과정의 특질연구—한·일 비교공업화사적 시점」(李海珠⁽¹³²⁾)은 단행본 『韓日比較經濟史論—공업화의 역사적전개와 그 특질비교』(李海珠⁽¹³³⁾)로 발전하였으며, 『日本資本主義 成立期研究—본원적 자본축적을 중심으로—』(徐廷翼)는 박사논문(연세대, 1986)이다. 이외에 「戰後日本の 重化學工業化에 관한 研究」(辛泰坤⁽¹³⁴⁾)와 「明治維新과 經濟發展」(李亨純⁽¹³⁵⁾)이 있으며 저서로는 『戰後日本 經濟發展, 貿易政策史』(김중수 외⁽¹³⁶⁾), 역서로는 『일본경제사』(堀江保蔵著, 黃明水譯⁽¹³⁷⁾), 『日本經濟史』(永原慶二편, 朴玄採譯⁽¹³⁸⁾), 『日本經濟史』(이시이 간지著, 조금안譯⁽¹³⁹⁾), 『日本經濟史』(石井寬治著, 李炳天·金潤子譯⁽¹⁴⁰⁾), 『日本資本主義 發達史』(後藤精編, 李啓煌譯⁽¹⁴¹⁾), 『日本帝國主義의 研究』(랄프 알버테지著, 韓永鐸譯⁽¹⁴²⁾) 등이 출판되었다.

(121) 서울대학교 經濟研究所, 1983.

(122) 大旺社, 1987.

(123) 『國際經濟動向』, 5-4, 1981.

(124) 『中大論文集』, 26, 1982.

(125) 『日本研究』(釜山大), 4, 1985.

(126) 『東亞研究』, 2, 1983.

(127) 『政經文化』, 217, 1983.

(128) 『經濟學研究』, 34, 1986.

(129) 『新東亞』, 216, 1982.

(130) 『政經文化』, 198, 1981.

(131) 『日本文化』(釜山大), 4, 1985; 『韓日經濟論集』, 1, 1984.

(132) 『釜山大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30, 1980.

(133) 『比峰出版社』, 1983.

(134) 『日本研究』(釜山大), 創刊號, 1982.

(135) 『亞細亞研究』(高麗大), 1984.

(136) 미덕문화사, 1983.

(137) 韓國日本學會, 1980.

(138) 지식산업사, 1983.

(139) 청하, 1983.

(140) 동녘, 1984.

(141) 청아출판사, 1983.

(142) 까치, 1981.

일본의 對外貿易에 대해서는 「엔화강세」·「엔高」라는 배경에서 일본의 무역동향과 금후의 전망, 국제경쟁력, 국제수지, 일본의 對美·EC무역마찰, 시장개방조치, 플랜트수출, 대외 경제종합정책, 한·일 무역 및 대일무역 역조 시정방안, 일본의 대중, 북한, 미 무역 등 제 문제에 관한 조사보고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들 이외에 일본의 對外貿易과 관련된 主要研究로는 「일본의 80년대 통상산업정책」(김정⁽¹⁴³⁾), 「한일무역역조의 구조적 요인에 관한 고찰」(김병문⁽¹⁴⁴⁾), 「한·일무역 역조의 현황과 개선책」(金世源⁽¹⁴⁵⁾), 「차별심한 일본의 수입문호—한일 불평등 경제관계」(황인일⁽¹⁴⁶⁾), 「일본의 대중공무역 동향」(閔丙彩⁽¹⁴⁷⁾) 그리고 무역사적 연구로는 「근세일본의 주인선무역에 관한 연구」(김문관⁽¹⁴⁸⁾)가 있다. 일본의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綜合商社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1980년대에는 더욱 진전되어, 「일본종합상사의 史的 考察」(金榮來⁽¹⁴⁹⁾), 「일본종합상사의 발전과정과 대외무역전략에 관한 고찰」(송희영⁽¹⁵⁰⁾), 「전후 일본 경제발전에 있어서 종합상사의 역할」(장병익⁽¹⁵¹⁾) 등의 논문과 함께 研究書로는 『貿易發展과 綜合商社』(李鍾允⁽¹⁵²⁾)와 『綜合商社論』(金榮來⁽¹⁵³⁾)이 나왔다. 한편 역서로는 『通商省과 日本의 奇蹟』(차머스 존슨著, 김태훈譯⁽¹⁵⁴⁾) 및 『日本株式會社』(존 위로노트著⁽¹⁵⁵⁾) 등이 출판되었다.

日本の 對外經濟協力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의 展望과 問題點, 海外投資, 直接投資, 韓·日經濟協力, 日·中共經濟協力 등의 제 문제를 중심으로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分野의 研究로는, 「일본대의경험의 현황과 문제점」(朴玄塚⁽¹⁵⁶⁾), 「일본주식회사의 엄청난 해외자본진출」(曹圭河⁽¹⁵⁷⁾),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와 국제수지」(유관영⁽¹⁵⁸⁾), 「일본중소기업의 해외진출추이와 그 지원체제」(金秉柱⁽¹⁵⁹⁾), 「일본의 흑자환류계획과 대외경제협력기

(143) 『地域經濟』, 1-1, 1980.

(144) 『해군 제 2 사관학교 논문집』, 3, 1981.

(145) 『アジア公論』, 101, 1981.

(146) 『新東亞』, 302, 1984.

(147) 『日本研究』(釜山大), 2, 1984.

(148) 『濟州大 論文集』(人文·社會科學), 21, 1985.

(149) 『忠北大論文集』, 22, 1981.

(150) 『經營經濟』, 14, 1982.

(151) 『울산공대 연구논문집』, 14-2, 1983.

(152) 博英社, 1987.

(153) 法文社, 1987.

(154) 우아당, 1983.

(155) 학일출판사, 1982.

(156) 『新東亞』, 216, 1982.

(157) 『新東亞』, 314, 1985.

(158) 『地域經濟』, 2-6, 1981.

(159) 『輸銀調査月報』, 3-7, 1984.

금(DECFF)의 공여조건개선(金周鎰⁽¹⁶⁰⁾), 「한일경제 협력관계의 추이와 전망」(李海珠⁽¹⁶¹⁾), 「일·북한간의 경제교류현황과 전망」(박춘삼⁽¹⁶²⁾), 「일·중공간경협실태 및 전망」(신승철⁽¹⁶³⁾), 「일본의 남북한 경제교류의 속셈」(曹圭河⁽¹⁶⁴⁾)이 있으며, 저서로는 박사논문(경희대)『한일경제협력에 관한 연구』(威泰鉉, 1985)와 『동아시아와 일본제국주의』(김영호⁽¹⁶⁵⁾), 역서로는 『일본제국주의의 현황—대동아공영권의 부활』(매코맥 외著, 박계문 옮김⁽¹⁶⁶⁾) 등이 출판되었다.

金融, 通貨分野에서는 金融自由化와 그 속에서의 金融政策, 金融構造, 金融機關의 業務現況, 金融商品開發(소비자금융, CD발행 등), 公正割引率引上, 換率 등 제 문제에 대해서 각 은행이 발행하는 잡지를 통해서 많은 조사보고논문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投資와 租稅分野에서는 자본시장의 자유화와 직접투자, 국채발행 및 세계화력 등에 대한 조사보고논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분야에서는, 한국의환은행이 펴낸 「일본의 금융개방과 엔화시세」 및 「일본의 금융변혁」⁽¹⁶⁷⁾을 비롯하여, 「일본의 최근 금융개방조치」(李相勉⁽¹⁶⁸⁾) 「일본의 금융자유화」(이용희⁽¹⁶⁹⁾), 「일본의 금융정책과 금융구조」(한국무역협회⁽¹⁷⁰⁾), 「일본금융산업의 성격 및 기능」(이흥일⁽¹⁷¹⁾), 「일본의 소비자신용 공여기관 현황」(김두경⁽¹⁷²⁾), 「일본지방은행의 경영현황」(대구은행⁽¹⁷³⁾), 「일본의 경제발전과 은행」(金宗炫⁽¹⁷⁴⁾), 「일본엔화환율의 추이와 전망」(이용희⁽¹⁷⁵⁾), 「일본기업의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金炳採⁽¹⁷⁶⁾), 「일본의 외채 발행현황과 전망」(증권감독원⁽¹⁷⁷⁾) 등이 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低成長에의 對應戰略으로 日本에서는 産業構造의 전환이 추진됨과 더불어 첨단기술의 개발이 추진되어 電子産業등 첨단산업을 발전하고 QC 운동이 전개되

- (160) 『韓日經商論集』, 3, 1987.
 (161) 『釜山商大論文集』, 44, 1982.
 (162) 『統一論叢』, 4-2, 1984.
 (163) 『政策研究』, 58, 1984.
 (164) 『新東亞』, 302, 1984.
 (165) 한밭출판사, 1983.
 (166) 한마당, 1984.
 (167) 『外換銀行月報』, 200, 208, 1984.
 (168) 『外換銀行月報』, 203, 1984.
 (169) 『世界經濟動向』, 2-8, 1984.
 (170) 『貿易』, 175, 1981.
 (171) 『金融』, 324, 1981.
 (172) 『銀行界』, 213, 1984.
 (173) 『大邱地域經濟分析』, 71, 1984.
 (174) 『韓一銀行創立 50 週年 紀念論文集』, 1982.
 (175) 『地域經濟』, 2-9, 1981.
 (176) 『證券』, 42, 1984.
 (177) 『證券調查月報』, 48, 1981.

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産業, 技術 및 生産性에 대해서도 많은 조사보고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철강·석유·전자·자동차·섬유·해외건설·농업·식량문제·축산을 비롯하여 교통운수·해운·통신·보험·증권·신탁·유통기구·마케팅 등에 대한 조사보고논문들이 각 업계지를 통해서 다수 발표되고 있으며, 産業界의 動向 및 産業政策과 그리고 技術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新技術開發 등에 대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農業에 관해서는 單行本으로 『80年代 日本農村의 基本方向』(김장환⁽¹⁷⁸⁾)과 『1981年度 日本의 農業施策』(이두순⁽¹⁷⁹⁾)이 출판되었으며, 기술 및 생산성향상에 관해서는 「日本의 生産性向上要因」(이용희⁽¹⁸⁰⁾), 「일본기업의 소집단활동에 관한 연구」(김범국⁽¹⁸¹⁾), 「日本의 技術開發 支援制度」(김기성⁽¹⁸²⁾), 「일본은 왜 기술이전을 기피하는가」(유관영⁽¹⁸³⁾) 등의 논문들이 나왔으며, 연구저서로는 『日本·中共·韓國·産業技術比較』(森谷正規著, 金尙榮譯⁽¹⁸⁴⁾), 『技術吸收의 經濟學—日本·韓國經驗比較(일문)』(朴宇熙, 森谷正規⁽¹⁸⁵⁾)가 출판되었다.

日本의 企業經營 및 勞動 分野에서는 일본기업의 經營戰略, 企業經營의 國際比較를 통한 日本企業의 經營的 特質, 雇傭制度, 賃金 및 勞使關係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전되었으며, 1985년 이후에는 벤처 기업에 관한 논문들도 나오고 있다. 기업경영에 대해서 譯書로는 『日本人의 經營哲學』(占部都美著, 李春達譯⁽¹⁸⁶⁾)과 『日本經營의 内幕』(엔토니 에이더스著, 김남석譯⁽¹⁸⁷⁾) 『日本資本主義의 精神』(山本七平著, 이복형譯⁽¹⁸⁸⁾)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전환기에 있어서의 일본기업의 대응전략」(김봉수⁽¹⁸⁹⁾), 「일본적 경영에 대한 소고」(徐麟德⁽¹⁹⁰⁾), 「일본식 경영의 효율성과 한계성」(南容澤⁽¹⁹¹⁾), 「일본적 경영의 배경과 특성」(柳泰模⁽¹⁹²⁾), 「日本企業의 經營的 特質」(吳鍾錫⁽¹⁹³⁾), 「일본경영이념의 사회경제적 배경」(南容澤⁽¹⁹⁴⁾), 「일본명치기 기업정신에 관한 소고」(黃明水⁽¹⁹⁵⁾), 「일본의 기업경영방법에 관한 연

(178)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2.

(179) 同上, 1982.

(180) 『地域經濟』, 2-9, 1981.

(181) 『社會開發研究』(濟州大) 1, 1985.

(182) 『産銀調査月報』, 319, 1982.

(183) 『新東亞』, 303, 1984.

(184) 經營文化社, 1980.

(185) 東洋經濟新報社(東京), 1982.

(186) 新藝苑, 1981.

(187) 흥신문화사, 1982.

(188) 韓國放送事業團, 1983.

(189) 『産銀調査月報』, 322, 1982.

(190) 『嶺南大經營大學院論叢』, 1983.

(191) 『韓國外大論文集』, 17, 1984.

(192) 『釜山開放大學論文集』, 26, 1984.

(193) 『日本研究』(釜山大), 2, 1984.

(194) 『經濟經營研究』(한국의국어대), 3-1, 1984.

(195) 『韓國經商論集』, 2, 1986.

구—인사관리측면을 중심으로」(신원무⁽¹⁹⁶⁾), 「기업경영의 국제비교 분석—한·미·일을 중심으로」(高時天⁽¹⁹⁷⁾), 「일본경영학의 발전현황과 그 전망」(李氣乙⁽¹⁹⁸⁾) 등이 있다. 이외에, 「日本 大企業の 株式保有와 支配構造」(許燁⁽¹⁹⁹⁾), 「日本稅制改革의 最近動向」(金都亨⁽²⁰⁰⁾) 그리고 회계제도에 대해서는 「일본회계제도의 근대화과정」(高承禧⁽²⁰¹⁾), 「일본에 있어서 회계 제 법규의 개정과 제도회계의 동향」(金在紋⁽²⁰²⁾) 등이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본의 중소기업지원시책」(허광숙⁽²⁰³⁾), 「일본의 중소기업사업전환」(중소기업은행編⁽²⁰⁴⁾),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본의 재벌해체와 기업집단의 전개」(吳鍾錫⁽²⁰⁵⁾) 그외에 「일본의 지방공사」(俞焄⁽²⁰⁶⁾) 등이 있다. 노동관계에 대해서는 박사학위논문(慶應大)『終身雇傭制의 日韓比較(일문)』(安春植⁽²⁰⁷⁾)가 출판되었으며, 논문으로는 「日本の 勞働經濟」(한국경영자총협회⁽²⁰⁸⁾), 「일본노운의 보수화와 영국노운의 급진화」, (吉昇欽⁽²⁰⁹⁾), 「일본의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연구」(朴德濟⁽²¹⁰⁾), 「일본의 고용정책과 한국경제에의 함의」(裴茂基⁽²¹¹⁾), 「준전시체제하의 노사관계—일본」(康季三⁽²¹²⁾), 「노사협약의 현황에 관한 한·일 비교고찰」(이원우⁽²¹³⁾), 「한·일간 산업 및 고용구조의 장기예측」(李鍾燮⁽²¹⁴⁾), 「日本社會保障制度의 研究」(愼燮重⁽²¹⁵⁾) 등이 있다. 벤처기업에 관한 논문으로는 「일본의 벤처비즈니스와 벤처캐피탈」(한국마케팅 연구원編⁽²¹⁶⁾)과 「일본의 첨단기술 산업현황」, 「일본의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현황」(중소기업은행編⁽²¹⁷⁾) 등이 있다.

(196) 『商經論叢』(연세대), 35, 1984.

(197) 『建國大學術誌』(人文·社會科學篇), 28, 1984.

(198) 『産業과 經營』, 38, 1984.

(199) 『經營論叢』(고려대), 26, 1984.

(200) 및 (201) 『日本研究』(釜山大), 5, 1986.

(202) 『經營經濟』(啓明大), 17, 1984.

(203) 『世界經濟動向』, 2, 5, 1984.

(204) 『企銀調査月報』, 23-6, 1985.

(205) 『日本研究』(釜山大), 4, 1985.

(206) 『行政論叢』(서울대), 20-1, 1982.

(207) 論創社(東京), 1982.

(208) 『勞働經濟리뷰』, 51, 52, 1981.

(209)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3-1, 1981.

(210) 『韓國放通大論文集』, 1, 1983.

(211) 『勞働經濟論集』, 5, 1982.

(212) 『清州師大論文集』, 12, 1983.

(213) 『韓日經商論集』, 1, 1984.

(214) 上同.

(215) 『日本研究』(釜山大), 創刊號, 1982.

(216) 『經營과 마케팅』, 194, 1985.

(217) 『企銀調査月報』, 23, 25, 1985.

IV. 日本經濟의 研究機關

일본경제에 관한 연구기관의 현황은 어떠한가. 우선 大學附設의 일본경제연구기관으로는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의 일본실이 있다. 이 연구소에서는 1970년대이래 『亞細亞研究』의 특집호를 중심으로 한일경제관계에 관한 학술논문들이 발표되어 왔으며, 그 日本室에서는 일본관계 문헌자료 수집과 함께 일본경제와 한일 정치·경제관계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한편 釜山大學校에서는 1981년에 日本問題研究所가 설치되어 日本의 經濟·社會·文化 등 각 분야에서의 基本的 問題에 대한 體系的 研究와 時事的 問題에 대한 動向分析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동안 『日本研究』가 第5輯(1986년)까지 발행되어 많은 연구성과들이 발표되었다. 이들 이외의 대학에서는 일본경제연구의 專門機構 없이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研究報告書를 내고 있다.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의 경우, 일본의 장기경제발전에 관한 문헌자료를 수집해오고 있으며 근래에는 研究報告書를 발행하였고 앞으로 일본경제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경제의 연구와 관련이 있는 학회로는 韓日 經商學會가 있다. 「韓日間の 經濟學 및 經營學에 관한 理論的·實證的 研究」를 목적으로 하는 이 학회의 학회지 『韓日經商論集』은 현재 제3권까지 나왔으며 일본 경제와 관련된 논문 3편이 발표되었다. 이 학회는 일본학자들과의 심포지엄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렇듯 대학연구기관에서의 일본경제연구는 일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그런대로의 연구성과를 올리고는 있다. 그러나 대학의 연구기관들이 아직도 본격적인 연구태세를 갖추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 日本經濟의 研究機關으로 자체의 研究人力을 갖추고 조직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産業研究院의 日本室이 있다. 이 기관에서는 일본의 産業·技術·貿易分野를 중심으로 그동안 12건의 研究調查報告書와 6건의 地域情報, 4건의 産業情報시리즈, 6건의 研究資料 및 26건의 翻譯시리즈를 발간하는 등 많은 연구업적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現實的인 問題에 對應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性格上 短期政策的인 것들이다. 産業研究院은 일본경제연구의 종합 및 체계화를 지향하여 ① 先進經濟發展戰略, ② 고도산업화시대의 日本의 産業, 技術, 地域開發, ③ 日本의 企業行態, 市場構造, ④ 산업화의 급진선에 따른 社會經濟的 諸問題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일본경제관련 情報資料의 集大成을 지향하고 있다.

이외에 전문기관은 아니지만 日本經濟에 관한 調查研究는 몇몇 研究所와 韓國銀行을 비

뜻한 각 銀行, 각종 團體 또는 協會 및 기업의 調査部라든가 그에 준하는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日本經濟一般, 韓日關係를 포함한 일본의 對外經濟關係, 일본의 貨幣, 金融, 證券, 保險, 鐵鋼, 石油, 電子, 纖維, 農業, 技術, 流通機構, 企業經營 등 제 분야의 現況 또는 動向 및 政策方向에 관한 調査研究은 주로 이들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일본경제에 관한 조사연구의 대부분(84.3%)이 조사보계의 잡지를 통해서 발표되어 왔다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V.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韓國에서의 日本經濟研究에 관한 推移와 現況을 살펴보았다. 일본경제에 관한 연구는 국고정상화와 더불어 한일경제관계가 새로이 전개되는 196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한일경제관계가 확대·심화되는 1970년대이후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研究分野도 擴大되어 왔지만, 그 중에서도 經濟成長 및 動向을 포함한 經濟一般, 金融, 財政, 國際經濟關係 및 企業經營 등이 중심이 되어 왔다.

이러한 日本經濟研究에서 수적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日本經濟의 各部門의 現實的 問題와 관련된 短期的 調査研究들이다. 이들 조사연구는 각종 연구단체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은행, 각종 단체 또는 협회 및 기업의 조사부라든가 그에 준하는 기구를 통해서 그들 기관의 업무와의 관련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에 대해서 學術的 研究는 低調한 편이다. 그동안 일본경제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에 의한 연구는 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근래에는 수준 높은 연구업적들도 나오고 있다. 특히 日本經濟의 成長·發展이라든가 그 要因, 韓日經濟關係, 日本의 綜合商社 및 企業經營 등의 分野에서는 연구관심도 꾸준히 높아지면서 수준높은 연구업적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경제에 관한 學術的 研究는 學術誌에 발표된 論文數가 總調査研究論文數의 5.9%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적으로 매우 적다. 학술논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學術誌 掲載論文이 과거 4半世紀 동안에 95편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연구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研究著書로는 근래에 박사논문을 비롯해서 몇몇 나오기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도 始作的 段階에 있으며, 概說書의 출판도 유사한 상태에 있다. 翻譯書의 출판도 근래에 經濟史分野를 비롯해서 몇몇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日本經濟에 관한 學術的 研究은 그동안의 제 연구의 선구적 역할이 높지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初期的 段階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日本經濟에 관한 研究가 그 필요성은 크게 인식되면서도 그에 相應되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理由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一般的 理由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韓日間의 歷史的 關係에 연유하는 민족감정이 하나의 분위기로써 일본경제에 대한 능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저해해 온 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다. 그러한 분위기가 일본경제연구에 저해조건이었다고까지는 보지 않는다하더라도 적어도 消極的 條件으로 작용한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와 함께 일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며 또 알 수 있다는 막연한 심경도 일정하게 작용을 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日本語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고 일본어에 접근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며 동시에 필요한 일본문헌을 손쉽게 구득할 수 있는 조건때문에 일본문헌에 직접 접하는 것이 일본경제를 아는 쉬운 길이라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은 일본경제연구의 진전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일본에서의 연구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을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日本經濟에 관한 많은 필요한 情報들은 대부분이 日本文獻・資料를 통해서 직접 얻어지고 있으며, 學術的 研究의 경우에도 國內研究에 대한 言及 또는 그로부터의 引用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의 일본경제연구가 獨自的인 基盤에서 전개되기 위해서는 안이한 日本依存的 姿勢에서 벗어나 우리의 眼目에서 일본경제를 인식하는 자세를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래야만 일본의 專門家들과의 대등한 연구상의 교류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歐美諸國의 학자들이 일본경제에 관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연구업적을 많이 올리고 그것이 일본학계에서 주목되어 일본어로 번역되어 활발한 學術的 交流를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獨自的인 研究姿勢의 확립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두번째 理由로 들 수 있는 것은 研究態勢가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日本經濟를 研究하는 專門家가 不足하다는 것이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경제연구에 참여해 온 연구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전문연구분야를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와의 관련에서 일본경제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 日本에서는 韓國經濟의 여러 분야에 관한 研究者가 大學 및 研究所에 다수 있으며 그들에 의해서 연구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 많은 研究業績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우리학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일

본경제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체계적으로 심도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專門研究者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研究態勢의 문제와 관련해서 둘째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연구에 필수적인 文獻·統計資料의 整備이다. 일본경제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실질적으로 연구자가 자신의 관심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研究機關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도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網羅的·體系的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이점 역시 日本의 研究機關에서의 韓國經濟에 관한 各種資料의 망라적·체계적 蒐集과 整理상태와 비교할 때 한국에서는 그것이 아직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위에서 우리는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경제연구가 그 필요성은 크게 인식되면서도 호의적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研究風土, 專門研究者의 不在, 資料蒐集 및 利用體制의 未備 등으로 상응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초기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일본경제에 관한 연구는 일부 研究者들에 의해서 꾸준히 推進되어 왔으며 근래에 들어 오면서 학술적 연구는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와 産業研究院에서는 앞으로 일본경제에 관한 지속적·체계적 연구와 문헌 및 통계자료의 광범한 체계적 수집과 정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일본경제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발전의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